

# AI로 걸음걸이 분석 치매 위험 조기발견

정우용 기자 | 승인 2024.06.05 06:00

## 환자 특유 걸음걸이 특징 감지시스템 2027년 실용화 목표

### 릿지라인즈 등 공동연구팀

[의학신문·일간보사=정우용 기자] 인공지능(AI)으로 걸음걸이 등을 분석하고 치매의 조기발견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.

일본 후지츠 산하 컨설팅회사인 릿지라인즈(Ridgelinez)는 국립순환기병연구센터 및 AI 벤처회사인 노엘과 함께 치매환자 특유의 걸음걸이 특징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. 해석에는 후지츠가 개발한 체조경기 채점지원시스템에 사용되는 자세인식 AI기술이 활용된다. 공공시설의 카메라영상으로부터 부자연스러운 보행 등 치매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.

증상의 진행을 눈치채지 못해 진료가 늦어지거나 배회할 위험을 줄이고 고령자 본인이나 가족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.

앞으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보관리규칙을 마련하고 개호시설의 협력을 받아 분석한 뒤 오는 2027년 실용화한다는 목표이다.

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인구가 거의 최고에 이르는 204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약 1197만명이 치매나 그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(MCI)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

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AI는 앞서 실용화가 진전되고 있다. 치매 치료제 '레카네맵'을 판매하고 있는 에자이는 생활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 인지기능 저하위험을 예측해주는 AI 개발에 착수했다.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내 스마트폰 등으로 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.

또 디엔에이(DeNA) 자회사는 음성으로 날짜 등을 대답하면 AI가 인지기능 변화를 판별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.



정우용 기자 yong1993@bosa.co.kr

---

저작권자 ©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